

화순 도곡농협 서병연 조합장

“당일 포장 싱싱한 화순 농산물 광주서 만나요”

도곡농협 로컬푸드, 롯데슈퍼 품앗점 개장...봉선동에 2호점도 650농가·신선채소 350여 품목...소득증대·삶의 질 향상 노력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가 광주에 진출한다. 화순군·전남도·롯데슈퍼와 손을 잡고 롯데슈퍼 품앗점·봉선점 등에 도곡 로컬푸드 코너를 선보인다. 품앗점 개장식은 5일 오후 2시다.

서병연 도곡농협 조합장은 “로컬푸드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것은 물론 도시민들도 살리는 도농상생 사업”이라며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당일 포장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조합장은 “도곡농협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100%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만 취급한다는 것”이라며 “당일 포장하니 싱싱하고, 직접 가져다놓으니 운송비가 들지 않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개장한 도곡 로컬푸드는 전남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전체 매장 336명 가운데 순수 로컬 농산물만 취급하는 매장이 25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650여 농가가 신선채소 350여 품목 등 660여 품목을

생산자의 이름을 걸고 매일 포장에 낸다. 싱싱하고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도곡농협 로컬푸드매장은 명소가 됐다. 주말이면 하루 2000명이 넘게 찾는데, 80%는 광주 등 다른 지역 고객이다.

도곡농협은 2020년까지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월 50만원 이상 매출 농가 200곳을 만드는 게 목표다.

도곡 로컬푸드는 서 조합장의 작목이다. 도곡은 인근에 골프장 5개와 중흥골드스파, 고인돌 유적지, 운주사 등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길목에 있다. 이같은 지리적 환경 때문에 농민들이 도로변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험한 데다 날씨가 맞으면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는 “도곡에서 나오는 신선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 팔 방법은 없을 까라는 고민 끝에 로컬푸드가 탄생했다”고 귀띔했다.

로컬푸드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노인들이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서병연 조합장

로컬푸드에 공급하면서 수입이 생긴 것이다. 수입이 생기다보니 부부간에 외식을 하게 되고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문화가정에는 로컬푸드가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는 도곡농협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그동안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치중하던 농협 운영을 농가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조합원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합 설립 목적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이다.

도곡농협은 제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라이선스센터 GAP(농산물우수관리제) 도정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도곡농협에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다. 라이선스센터(RPC)에서 생산하는 무농약 쌀 ‘자연속 쌀 순미’가 전남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에 선정된 것이다. 이 쌀은 성북고 등 서울 지역 초·중·고 150개교에 학교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 덕에 서 조합장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이달의 선도조합장과 올해의 선도조합장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서 조합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운동회관을 다시 동여매 ‘도곡농협 비전 2020’ 비전 달성과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불안감 확대 코스닥 4.48% 하락...연중 최저치 기록
성급한 매도전략보다는 보수적 대응 필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3.30% 하락하며 1998.13pt로 올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2000pt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닥지수도 4.48% 하락하며 615.70pt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28일 정식 제외될 예정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향후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월 초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소재로 국산화되었던 이슈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비반도체 분야 특히 산업의 기반인 기계(산업기계)류 등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에 2차, 3차 벤더 업체까지 확대하면 어떤 부품과 장비가 사용되고 있고 관련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까지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이 수출금지제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개별 품목에 대해 90일 내외의 수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국가에 속하게 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했지만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면 일본기업이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관리내부규정(ICP) 인증을 획득하면 특별일만포괄허가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중국, 대만, 홍콩처럼 큰 어려움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의 대외 기업들은 이러한 ICP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가 정쟁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일본정부가 8월 말에 포괄허가의 종류, 요건, 범위 등을 다루는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떤 제품과 기술들이 특별일만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따라 영향력의 실질적인 범위와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글로벌증시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0.25% 금리인하 발표 이후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 금리인하를 통화안화의 시작이 아닌 보험성 인하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발표 및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취소 발언도 증시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고점 대비 -3.33%와 -4.02% 하락했다. 일본과 중국도 불확실성 확대로 동반 하락했다.

이번주에도 국내증시는 한일분쟁, 미중무역협상, 북미회담 등 매크로 불확실성과 8월 말 중국 A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의 신흥시장(EM) 지수 편입에 따라 불리한 수급환경으로 주식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 지난 5월의 국인과 국내기관동향을 회상해보면 이번에도 외국인 순매도 압력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이번 주에도 보수적인 시장대응이 필요하다. 취약한 수급상황에서 부진한 기업실적과 외부변수에 의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증시와 국내증시가 차별화 되면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저평가 상태로 적극적인 매도전략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고 저점 매수타이밍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성급한 매도전략보다는 관망하거나 지수관련 대형주와 코덱스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저점 분할매수가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통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대표통장 금융사기 막자”

농협 전남본부·경찰 피해 예방 사례 공유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전남경찰청장실에서 농협 직원들을 초청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창수 강진남부농협 대구지점 지점장, 이순금 화순농협 광덕지점 지점장, 이금실 동광양농협 중마지점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표통장 및 금융사기 강력 근절을 결의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 사례를 나눴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전남지역 금융접포가 가장 많은 농협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고객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남농협은 경찰과 협력해 대표통장 및 금융사기 근절에 앞장서 고객과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올 상반기 금융사기 예방실적은 26건 9억2000만원 규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비농협, 주부대상 ‘컴퓨터교실’ 진행
광주비농협은 농가주부모임·고향주부모임 회원 20여명과 7월 한 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수완직업학교에서 ‘농가 블로그 만들기’, ‘스마트팜 활용법’ 교육 등 ‘여성만세 컴퓨터교실’을 진행했다.

농업인 주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현장 설명회

농협 전남본부 지원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한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2일 보성군 보성을 옥암리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서 ‘농업인이 주도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 설명회’를 열었다.

옥암리 태양광 발전소는 농협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지난 5월 착공한 지 40여 일 만에 완공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련 단체, 영농형태양광협회, 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전소 추진배경과 경과보고, 발전소 현황 및 손익추정 등의 순서로 현장 설명회가 진행됐다.

했다.

농협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계기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협 마을단위 태양광 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를 보전하고 영농을 병행하면서 농의 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100kW 규모로 설치하면 농지 2150㎡(약 650평) 면적이 쓰이고 사업비는 총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신산업부담금 4개 단계상환율 - 전액 - 전액 - 재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3조원) 추진 가력함에 경영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